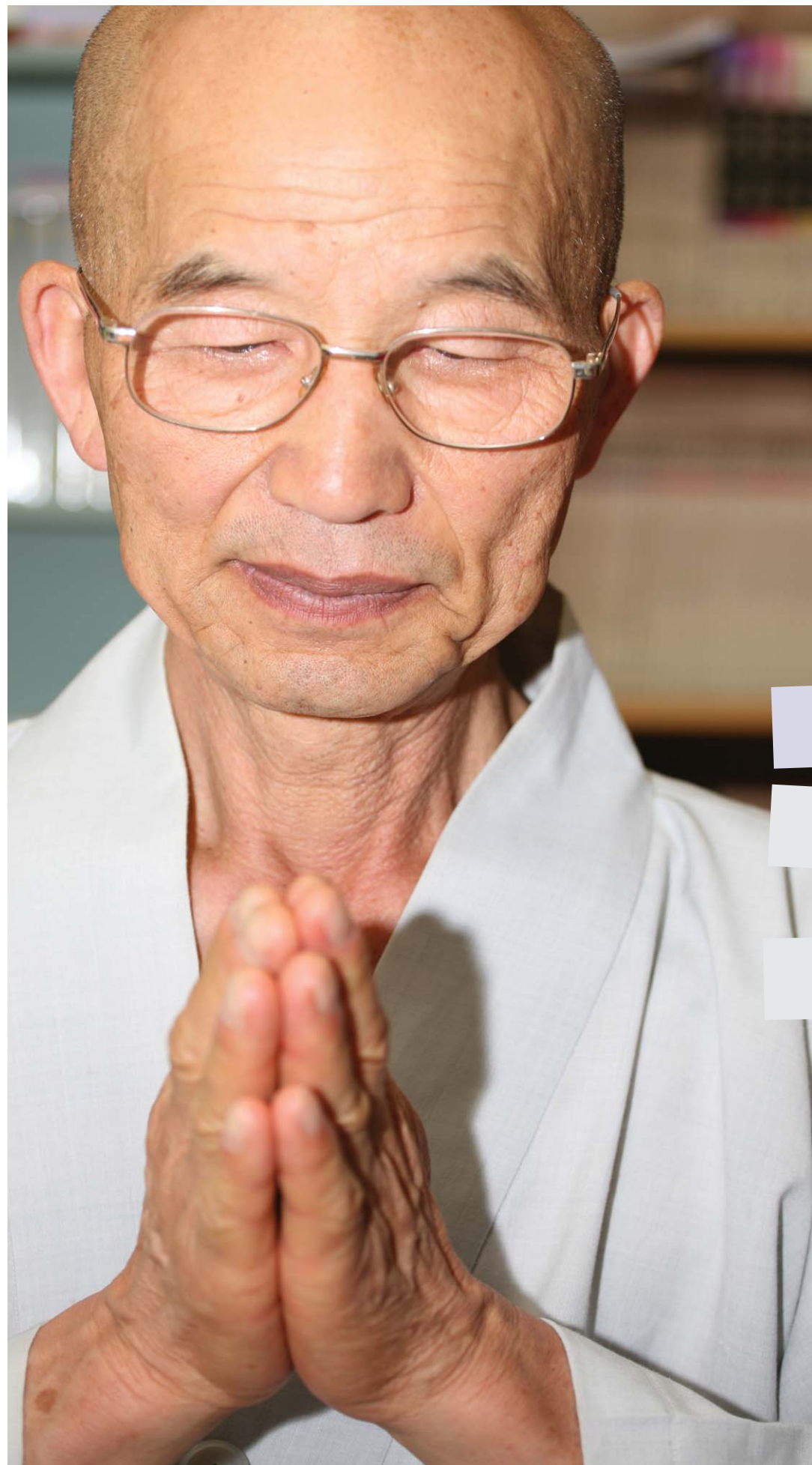


“내 가족 잘 보살피는 것도 보살행이에요”



상촌마을을 마둔저수지를 돌아 서운산 계곡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도 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다. 길을 잘못 들었나 싶어 조바심을 치며 좀더 올라가자, 이런 마음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는 듯 주홍색 나리꽃이 호랑나비 앞세우고 벼선밭로 마중 나와 있다. 나리꽃은 객의 마음만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출한 산사를 화려한 빛으로 보듬고 있다.

신라 문무왕 때 창건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석남사는 천년이 넘는 고찰이다. 정무스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찰의 모양새가 추태했지만 지금은 금광루, 대웅전, 영산전, 요사채를 갖추고 있어 소박하지만 사격이 느껴진다.

정무 스님은 팔십이라는 연세가 무색할 만큼 허리는 꼳꼳했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으며,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무슨 비법이라도 있는지 여쭙었더니 “비법은 무슨 비법, 그냥 소박하고 규칙적인 생활 하고 항상 밝은 생각으로 사는 거지.”라고 답하신다.

정무 스님은 전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까지 약 20여 년간 모셨다. “요즈음 자신에게 그렇게 철저한 선지식은 없다”면서 아쉬워하였다. 전강스님 문하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를 들려

지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을 5식이라 한다. 생각으로 아는 것을 6식이라 하며, 7식인 말라식은 무의식의 세계이다. 그리고 8식은 알라야식 즉 불생불멸의 잠재의식인데 바로 부처님의 세계이다.

“부처님께서 육년간 지극정성으로 고행을 하다 보니 머리에 새가 집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때 이미 오식, 육식, 칠식을 투과해버렸어요. 그 후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팔식의 경지까지 간 겁니다. 불생불멸인 알라야식을 획득한 것이지. 부처님은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생사를 완전히 해탈하신 분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생사를 소화했고 미국인 스킵트너어링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처럼 되면 좋지만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잘 살아서 잘 죽어야 해요.”

행복하게 살려면 평소 행복해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정무 스님의 철학이다.

“사람들은 행복한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복을 바라는데 그것이 잘못된 거여. 그런데 행복과 불행은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로병사(生老病死)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 감사할 일만 생겨”

“잘 살아서 잘 죽어야...베푸는 삶이 최고”

“행복해지려면 행복해지는 습관 들여야”

주셨다.

“수좌를 대표할 만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인가받겠다고 전강스님을 찾아다니는 이가 있었어. 그런데 전강스님은 이 사람 ‘상’을 없애려고 더운 여름날 점심공양하고서는 꼭 1시간씩 발에서 일하게 했고, 시간에 1분이라도 늦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지. 한 사람 때문에 대중들이 공부 참 힘들게 했지. 그 사람 결국 인가를 못받았어.”

열반하신 경봉 스님도 전강 스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하루는 전강 스님께서 마당에 원을 하나 그려놓고 경봉 스님에게 “원 안에 들어가도 두드려 맞고 안 들어가도 맞는다. 어떻게 하겠는가?”하고 물었다. 그러자 경봉 스님은 고무신을 벗어서 원을 싹싹 지워버렸다. 전강 스님은 그때는 “어렵도 없다”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았지만, 후일에는 경봉스님의 공부가 무의의였음을 알고 인가를 해주었다.

“전강스님은 회향을 참으로 잘 하셨는데 열반에 드시는 그날도 점심 자시고 나서 넘치시 ‘오늘 가 봐야겠다.’고 일러놓고서는 저녁에 열반에 드셨어. 죽음이 초연하신 것이지.”

정무 스님은 “참선뿐만 아니라 철학, 신선도는 잘 죽기 위한 공부”라면서 죽음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우리에게도 팔식이 있는데, 다섯 가

를 사교(四苦)로 알고 있지만, 대승에서는 고통이 아닙니다. 사교는 무명(無明)에서 오는 것이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면 생(生)은 고통이 아닙니다. 곁게 물든 단풍잎은 꽃보다 더 예쁘다고 좋아들 하잖아요.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게 늙어야 합니다. 잘못 늙으니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또 병은 평소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생긴 것임을 알아야 해요. 사람들은 건강할 때 과식, 과음, 게으름 등을 키워서 병날 일을 하려하는 것이지. 죽음이 왜 괴로운가? 잘못 살았으니 죽음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다들 죽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죽으면 별 거 있는가? 보살이라면 죽음을 앞에 두고 ‘아. 이제 편안하게 쉬겠습니다.’ 하고 죽음에 대해 달관해야 되요.”

스님은 자연주의자이자 작가였던 미국의 스킵트너어링처럼 죽음을 맞이하면 좋겠다고 한다.

스킵트너어링은 죽음이 ‘광대한 경험의 영역’이라 생각했기에 죽음 앞에서 회한에 젖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어떤 의사도 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유언을 하였다.

요즈음 신문이나 방송에서 노후 준비 자금으로 심익이 필요하다고 떠드는데 돈만으로 노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다. 노후준비를 한

다고 현실생활을 망각하는데 무료요양원에 가 보면 노인들이 “돈도 건강도 문제가 아니다. 외로워서 죽겠다”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단다.

“노인의 세 가지 고통을 돈고(돈 없는 고통), 병고(病苦), 독고(獨苦)라고 하잖아요. 다른 것은 제쳐두고 독고는 평소 배움지 않아서 생긴 고통입니다. 주변 사람도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근본자리에서 보면 남을 돕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을 잘 보살피는 것도 요즈음은 큰 보살행이란단다. 연로한 부모를 무료요양원에 갖다버리는 시대이니 부모를 잘 모시는 것도 보살행이요, 우리나라 주부 알곡을 증독자가 55만명이 넘는 세상이다 보니 자식들을 잘 키우는 것도 보살행이 되는 것이다.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식 소용없다는 말과 돈이 효도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미운 짓을 하면 더 나쁜 짓을 안 하니 감사하다 여기고 공부 못하면 건강하게 잘 살아주니 감사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르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행복은 행복을 부르는 것이 마음의 법칙입니다.”

정무 스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 맞는 법문을 들려주기에 스님과 마주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진리에 맞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게 된다. 스님은

어찌 그리 재가신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부처님처럼 날마다 잘 알고 현실에 합당한 치료법을 제시하느냐고 여쭙었더니 “내가 그래서 가끔은 오해를 받아.”라는 말씀과 함께 환하게 웃으신다.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은 자신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음을 스님은 일깨워 주셨다. 자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모든 것들-매미소리, 물소리, 나리꽃, 나비- 도 자신이 취사선택한 것임을 알았으니, 마음속에 고운 것 맑은 것만 들여놓아야 했다.

문운경(수필가 본지는설위원)



정무 스님(안성 석남사 회주·조계종 원로 의원)

1958년 전북대 수의학과 졸업. 은석사에서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1963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스님 문하에서 대교과 수료. 그 후 제방 선원을 돌면서 수행정진, 수련 용주사, 신희사 주지, 영월암 주지역일. 2007년 조계종 포교 대상 수상. 지금은 안성 석남사에 주석.

전통과 실력의 우수업체

범양금고 불전함

일반 내화금고 (가정용, 사무용)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이미지는 실사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목재 불전함과 크기 및 외관이 흡사하여 금고를 사용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 하였으며 통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하였습니다.

특히 투입구의 취약함을 차단하여 더욱 안전하며, 바퀴부착으로 이동 및 설치가 편리합니다. 수시로 훼손되는 목재형 불전함과는 안정성 및 비용면에서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불전함 야외용 주문 제작 가능]

범양금고의 모든것이 있습니다. <http://bumyang.net>

BYE30 사무용 [중량 100KG] 외부 630×500×500 내부 410×380×335	BYE70 사무용 [중량 120KG] 외부 610×500×500 내부 450×380×350	BYE750 사무용 [중량 140KG] 외부 750×520×500 내부 520×410×340	BYE80 사무용 [중량 160KG] 외부 860×580×510 내부 660×460×340
---	---	--	---

기존 불전함 투입구의 취약함을 보완하여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

불전함 내부구조

불전함 · 외 부: 높이 700×넓이 700×깊이 350(mm)
· 투입구: 가로 380×세로 90(mm) · 무게: 60kg

특히신중중. 주문제작. 전국택배 가능 (최대 3일내)

마이산 탐사, 부산 금정사의 계룡사,보광사,범성사,해림정사 등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범양금고 전화 02)2277-1540 / 031)764-6234, 6233 / 팩스 031)764-6462
011-414-2304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172-5